

4 >> 경희의료원 문화복지시설 ‘갑론을박’



8 >> 인터뷰 – 제2기숙사 김원동 경비팀장



2015학년도 1학기 정기 강의평가

- 기간 : 2015년 06.01(월) ~ 2015년 06.25일
- 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
-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성적 열람 및 공시기간 : 2015년 07.01(수) ~ 2015년 07.03(금)

예디, 공대 카페 임대차분쟁 9개월 쯤

KMC-KHAM-글로벌다이닝-개인사업자 꼬리무는 영업권 하청

KMC 명도소송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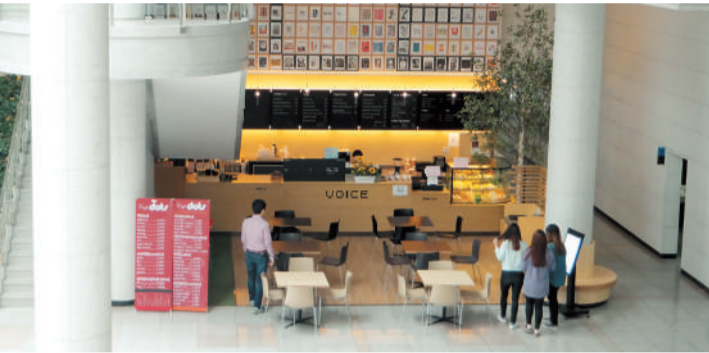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국제】 예술디자인대학관(예디)과 공과대학관(공대)의 카페가 임대차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매장에서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도 이 임대차 분쟁 탓으로,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운영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5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 전액 출자해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KMC)를 설립한다. 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이어서 KMC는 자회사로 케이에이치아이 자산운용(KHAM)을 세워, 캠퍼스내 카페를 중심으로 식음료사업을 벌였다. KHAM은 카페사업을

위해 예디와 공대, 서울캠퍼스 삼의원기숙사 총 3곳에 대해 학교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KHAM은 카페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식회사 글로벌다이닝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어 ‘외주’를 줬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다이닝’은 원자재를 공급하고 직원을 고용해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KHAM은 발생한 ‘매출의 88%’를 글로벌다이닝에 지급했다. 당시 수익에 대해 KMC 측은 “카드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세, 광열비 등도 KMC가 학교에 납부했다. 더불어 ‘학생편의 및 복지증진’ 명목으로 카페 인테리어까지 교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88%’를 지급하는 조건



예디 1층·공대학생 식당 옆 카페가 파행 운영 중이다

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2013년 7월, KMC는 자회사 KHAM의 식음료 사업부문을 이관 받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운영의 결정적인 배경은 ‘장애 인고용분담금’이었다. 장애인고용분담금은 민간기업 기준 상시근로자의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법률에 따라 납

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2013년 12월 기준 경희학원은 약 7억원을 납부했다. KMC 홍상일 실장은 “KMC가 직접 카페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이 직원이 학교의 고용자 수로 인정 돼 부담금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면으로 이어짐

O&P 학과평가 최우수

단과대학행정실, 한의대 최우수

미정원, “정원감축 지표 사용계획 없어”

‘2014 O&P평가’ 결과발표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2014 ‘Organization & Program Review(O&P)’ 평가 결과 중 학과 부문에서 아동가족학과,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4개 학과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단과대학 행정실 부문에서는 한의과대학이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O&P평가는 우리학교의 자체분석을 통해 한해동안 각 단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기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O&P평가가 우리학교 학과간 비교에 그쳐, 학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평가에서는 주요대학과 비교해 결과를 산출했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김성한 계장은 “생물학과의 경우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 다른 학과에 비해 취업률이 낮다”면서 이번 평가는 다른 대학의 유사학과와 비교해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아동가족학과,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최우수	우수
인문·사회·체육	아동가족학과	경영학부 사학과 주거환경학과 철학과 Hospitality경영학부
자연·공학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응용물리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의·약·간호학	-	간호과학대학 의과대학
예능	-	무용학부
전문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특수원	-	관광대학원
단과대 행정실	한의과대학	간호과학대학 공과대학 무용학부

인간들을 이야기하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㉔

고 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리디아의 왕 칸다울레스는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칸다울레스는 자신이 총애하는 신 하 기게스에게 왕비의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했고 급기야는 그녀의 벗은 몸을 몰래 훔쳐볼 것을 제안했다. 왕의 거듭된 성화에 밀려 기게스는 왕비의 침실에 숨어들었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훔쳐본 뒤 빠져나왔

다. 기게스의 도망가는 뒷모습을 본 왕비는 다음날 그를 불러 정숙한 여인의 몸을 볼 수 있는 자는 남편 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기게스가 스스로



《역사》의 본래 주제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국가들의 전쟁이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자결하던가 아니면 왕을 죽이고 자신의 남편이 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했다. 기게스는 칸다울레스를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어 왕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다. 리디아인들은 왕을 살해한 기게스에 대해 분노했지만 델포이의 신탁이 기게스를 지지하자 어쩔 수 없이 그를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신탁은 기게스가 신관들에게 은밀하게 제공한 금은의 덕이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BC 450-420 추정)는 리디아의 메르카다아 왕조를 창시한 기게스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기게스는

훗날 플라톤의 《국가》에도 등장하지만 신화처럼 묘사되는 플라톤의 이야기에 비해 헤로도토스는 리디아 역사의 일부분으로 기게스를 설명했다. 신화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헤로도토스의 방식은 당시 매우 새로운 것이었으며 그래서 키케로는 그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역사》의 본래 주제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국가들의 전쟁이지만 실제 내용은 잡다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7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교가〉, 〈목련화〉 편곡 담당하
이우창(포스트모던음악학) 교수



〈교가〉, 보사노바 락 버전까지 “100가지 편곡 ‘포모과’라 가능했다”

(포스트모던음악학)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지난 15일 포스트모던음악학과(포모과) 학생 30여 명의 목소리가 서울 캠퍼스를 가득 메웠다. 학생들은 개교 66년 행사에 맞춰 편곡된 〈교가〉와 〈목련화〉를 부르고 있었다. 고(故) 조영식 학원장 작사, 음악대학 김동진 전 학장과 박태준 작곡가의 작곡으로 1953년과 1974년에 각각 탄생한 〈교가〉와 〈목련화〉는 편곡을 거쳐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교가〉와 〈목련화〉가 순수한 상징물로 있는 것보다도 쉽게 접근하고, 들을 수 있는 음악 이 되도록 만들고자 했다

새로운 리듬과 오케스트라를 입힌 곡은 보다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편곡의 주인공은 이우창(포스트모던음악학) 교수를 비롯한 100여 명의 포모과 구성원. 현재 이들은 〈교가〉와 〈목련화〉 각각을 100가지 종류의 편곡으로 완성한 상태다.

이 교수에게 편곡이란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잃지 않은 또 다른 작곡’이다. 〈교가〉와 〈목련화〉가 지닌 ‘오리지널리티’는 그 의미가 크다. 우리학교의 설립자인 고(故) 조영식 학원장의 뜻이 담겨 ‘경희대학교의 노래’라는 상징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리듬과 음질은 구성원의 귓가에서 두 곡을 떨어뜨려놓는 원인이 됐다. 이 교수는 “좋은 음질과 퀄리티를 지닌 교가가 없어 이번 기

회에 새롭게 편곡을 하면 어떨까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각각 100곡으로 재탄생한 〈교가〉와 〈목련화〉는 다양한 특기를 지닌 음악가들이 모인 포모과이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편곡이 몇 주, 일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많은 인원이 있어서 단기간 내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각각의 100여 곡들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었다. 66주년 기념행사에서 선보인 오케스트라 버전 외에도 보사노바, 팝, 락, 댄스, 뉴에이지, 재즈, 박벤드, 아카펠라, 영어버전 등이 있다. 그렇게 완성된 결과에 이 교수는 “곡이 굉장히 나이스하다”를 연발하며 곡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편곡 방향은 구성원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100여 개나 되는 많은 곡 수는 다양한 구성원의 성향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교가〉와 〈목련화〉가 순수한 상징물로 있는 것보다도 쉽게 접근하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도록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의 전당이나 분관, 엘리베이터에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음악으로 쓰이는 콘텐츠가 현재 없다”며 곡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훌륭한 교수님과 학생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지난해 여름부터 6, 7개월 간 진행한 이번 ‘편곡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현재 포모과는 이번 편곡을 활용, 재학생과 동문이 모여 진행하는 발전기금콘서트를 준비 중에 있다.

알림

사령 〈명〉 수습기자

강경진(스페인어학 2014)
강규연(외국언어학 2014)
고상아(연극영화학 2015)
김규래(경영학 2012)
김다솔(중국어학 2015)
김도엽(정치외교학 2012)
김예준(일본어학 2015)
김정원(유전공학 2015)
김종완(화학 2015)
류제원(지리학 2015)

박새롬(언론정보학 2014)
양진원(생물학 2014)
이성민(프랑스어학 2015)
이소진(일본어학 2014)
이수형(경제학 2015)
장연수(중국어학 2014)
정혜빈(원예생명공학 2015)
조민호(관광학부 2015)
최병현(경영학 2015)
최재원(철학 2015)

다음 제1592호는 6월 8일에 발행됩니다
대학주보 온라인 기사는 계속 연재됩니다
media.khu.ac.kr/khunews